

# IMF고민 상담 급증

## '자비의 전화' 등에... 후원금·상담봉사원은 줄어

"최근의 심각한 경제난을 반영하듯 빚보증이나 전세금문제 등과 다단계판매로 피해를 입은 여성불자들이, 사이비종교단체에 현혹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전화가 전세상담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IMF시대의 민생고를 호소하는 불자들의 전화상담이 늘어났다는

이성희간사(인천자비의전화)의 설명이다. 어느때보다 전화상담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지만, 교계 전화상담기관 대부분은 상담원과 후원금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

대구자비의전화 조순자 교육부장도 "부부간의 불화 문제는 오히려 줄어든 반면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스님이 될 수 있는냐며 출가를 도피처 쫓으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화도 하루평균 3~4건이 걸려온다"고 말한다. 대구자비의전화는 최근 몇 달사이 1백여명에 이르던 상담원수가 70여명으로 줄었다. 전화상담은 대부분 40~50대 여성불자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들이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잃으면서 일터를 찾아 떠났기 때문이다.

제주자비의전화 경우도 후원금이 월 5만원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상담원도 1명만이 겨우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 전화상담기관은 서울 자비의전화(회

장 정덕), 인천자비의전화(회장 무철), 대구자비의전화(회장 고경순), 제주자비의전화(회장 지오) 등 4곳. 여기에 사찰차원의 봉은사 봉은상담실, 구룡사 진리의 전화, 불광사 바라밀상담실, 능인선원 법우상담실 등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오는 4월1일 천수천안의전화를 개통할 계획이다.

서울 자비의 전화 신화권국장은 "현재 상담기관들이 처해있는 문제들은 IMF시대에 교계 모든 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면서 "상담전화 운영체제 확립이 우선"이라고, 각 전화상담기관의 연합교육을 통한 상담교육표준화·정기적인 교류와 연대만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자 기자〉



◇상계지역 포교의 새 거점으로 단장된 보현사.

## 도심포교도량 상계동 보현사 '새 단장'

**일요-부부법회 등 신설**

서울 노원구 상계3동 보현사(주지 일관)가 현대식 포교도량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4백20평의 대지에 지상3층 지하2층 규모의 보현사는 1년여만의 불사공예에 새 도량에서 지역포교의 원력을 다지고 있다. 1층에는 극락전과 중무소가, 2층에는 수행단체 법

회장, 교양대강의실, 결혼식장 등으로 이용될 부용전, 3층에는 설법전이 들어섰다. 이밖에도 불교용품점, 지하주차장,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이 마련됐다.

보현사는 확장이전불사를 계기로 일요법회, 부부법회를 신설하고 불자들이 쉽게 귀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심포교의 새장을 연다는 계획이다.

매일 기도·독경·관세음보살 108 지송, 1주1회 가족법회 등 신앙의 생활화를 통해 가정불교를 활성화 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보현사는 신도회, 어린이회, 학생회, 구역법회(14곳) 등 수행단체활동을 비롯 불교교양대학 운영, 경문산제(년1회), 봉사활동 등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있다.

## 진관사 인근 쓰레기소각장 은평구청 "건립 안한다"

### 주민반대 등 여론수렴

최근 서울 은평구가 추진중인 진관사 1km 인근지역을 비롯한 4개지역에 대한 쓰레기소각장 입지후보지 조사와 관련 은평구는 "가능한 한 진관사에서 떨어진 곳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입지후보지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불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입지 후보지 조사가 거의 중단된 상태"라면서 "실사 조사가 끝나더라도 주민공람과 의견수렴(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 "서울소재 사찰 환경이상 없다" 시, 오수정화시설 조사

서울시내 사찰의 쓰레기·분뇨 처리 시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월중 시내 사찰에 대한 환경관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시내 사찰은 대부분 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중에 위치한 암자는 재래식 화장실을 설치, 퇴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음식물쓰레기 등 대부분 쓰레기 청소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조계종 노숙자 보호대책 마련한다

### 복지기금 20억 편성...사찰 역세권별로 지원

불교계가 홈리스(Homeless,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과천청사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 대표와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노숙자 보호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국·종교계가 공동으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관계자는 "불교계의 무료급식소, 천주교복지재단, 영락교회구호활동 등이 복지부의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가 홈리스들을 지하철거 등 밀집지역에서

강제로 끌어내 부랑인 수용소 등에 수용하는 강제적인 보호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일자리 제공과 무료진료, 목욕, 식사·잠자리 제공 등을 종교·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기금 20억원을 기금운영위원회에 신청하기로 했으며,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적십자사를 통해 종교·민간단체에 급식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조계종 사회부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홈리스대책안을 마련중이다. 조계종은 △교계의 무료급식소와 지역사회복지시설을 역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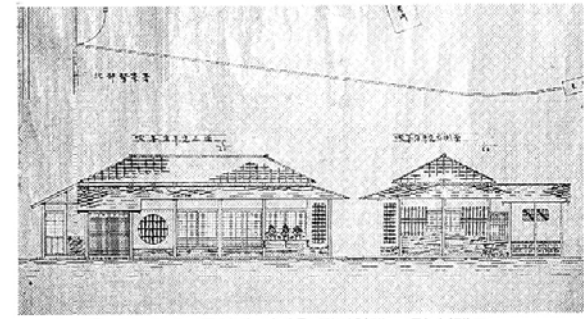
## 국방장관에 종교편향 면담요청

###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5일 일련의 군내 종교편향 사건과 관련, 천용택 국방장관의 면담을 요청했다. 포교원은 "군내 종교편향을 없애겠다는 신임 국방장관의 의지를 확인하고 군종과 관련한 불교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며 "전도봉 해병대사령관의 종교편향 발

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원은 또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새 해병대사령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도 소장과 관련, 종교편향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불교계의 우려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김도 소장은 지난해 각 대대 2명씩의 사병을 서울 임마누엘교회 성령수련대회에 참석케 했다.



◇조선총독부가 탐골공원에 다방을 짓기위해 그린 설계도.

## 탐골공원 위락시설 설계도 발견

### 정부기록보존소 "일제 민족정신 말살하려 했다"

조선총독부가 3·1운동의 발상지인 탐골공원에 일본식 다방과 야외음악당을 설치, 민족정기를 말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뚜렷해 밝혀졌다.

정부기록보존소(소장 김성영)는 1일 조선총독부가 1920년대부터 전국각지의 사찰과 문화재급 건축물을 조사, 수리하기 위해 작성한

도면들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탐골공원의 설계도를 발견했다. '탐골공원 다방예정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8장의 도면은 일제가 탐골공원 서북쪽에 연건평 1백50여평 가량의 다방을, 북동쪽에 야외공연장을 위한 20여평의 야외음악당 무대를 각각 설치하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북 경산의 Y사 주지스님과 사중스님들은 최근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조계종 총무원이 선학원 소속사찰 행자들의 행자 교육 입장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

**목탁 소제**

**Y사의 고민**

임연태 <취재1부 차장>

문화관광부에 법인해산 신청을 한데도 상당이 고무받고 있다.

선학원 재단은 일부 포교원들의 탈원 사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선학원을 탈원하기 위해서는 사무국과의 상담과 재단 이사

상당수가 종단으로 사찰을 등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단이 취하고 있는 각종 제한 조치들이 개별 사찰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무원은 재단법인 보현회가 최근 소속 사찰들을 종단에 등록하기위해 제

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종단의 현실적 규제에 쉽게 탈원을 결심해 버리는 포교원이 늘어날까 염려하는 것이다. 선학원은 재산과 명의를 함께 등록한 분원이 3백20여개, 명의를 등록한 포교원이 2백30여개로 이뤄져 있다.

명의를 등록한 포교원들이 종단과 선학원의 갈등구조 속에서 거취문제로 고민하는 대상인 셈이다. 재산까지 등록한 분원들은 재산을 환수받기 힘든 법적인 문제로 탈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찰은 수행과 전법의 도량이다. 소속 종단과 재단의 갈등구조 속에서 그 순수 기능에 장애를 받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손실이다. 조계종과 선학원이 하루속히 갈등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북 경산의 Y사 주지스님과 사중스님들은 최근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조계종 총무원이 선학원 소속사찰 행자들의 행자 교육 입장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

## 뉴스 & 뉴스

### 조계종 '불교교리' 고불식

불교의 교학체계와 근본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불교교리>가 조계종포교원에 의해 발행됐다.

이 책은 포교원이 96년 펴낸 <불교입문>에 이은 불자교육교재 제2권으로 입문교육을 마친 불자들을 위해 편찬됐다. △종교의 이해 △불교와 종교 △인도문화와 불교의 특성 △불교의 근본교리 △중국과 한국의 불교 △불교의 실천윤리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됐다.

포교원은 <불교교리> 출판기념식을 17일 오후5시 조계사대웅전에서 봉행한다. 이후 각 사찰에 배포해 5계를 이수한 불자들의 교육교재로 사용케 할 방침이다.

### 백양사 실직자 단기출가

조계종총무원(원장 율주)과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는 경제난극으로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불자들을 위한 '실직자 단기출가수련회'를 백양사 참사팀수행관에서 실시한다. 오는 23일~27일 1차 단기출가수련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총 5차례 걸쳐 진행한다.

이번 단기출가수련회는 어떻게 살 것인가·불교수행법·건강한 삶·정통문화의 이해와 올바른 인생관 등의 강연과 참선, 수행공양, 기도, 포행, 윤락 등의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685)92-7502

### '북주민 식량난 실태' 발표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본부장 법륜스님)는 참여사회연구소(소장 김대환)와 공동으로 13일 중문성당에서 '탈북주민 4백72명 면담조사'에 대한 학술회의를 연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법륜스님이 '탈북주민 4백72명 면담조사 결과와 최근 북한 주민의 식량난 실태'에 대해 발표한다. 또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씨가 '북한 동포돕기를 위한 민간 정부 연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 코끼리상대신 '구'자 조형물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정각인 법당앞에 있던 상징물 '코끼리상'을 '만(卍)'자 조형물로 바꿨다. (사진)

동국대는 지난해 12월 정각인 법당 앞 코끼리상을 철거하고 2월10일 미술학과 조승환교수가 제작한 '만(卍)' 상징물을 설치했다.

코끼리상은 1971년 당시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뜻을 모아 설치한 것. 현 대 명진관 앞 화단으로 옮겨져 있다.



##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안내

### 연등공양 이야기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 수록 내용 ◆

- 불족 발원문과 불족 법어  
부처님오신날 불족 발원문/부처님오신날 불족 법어/부처님오신날 불족 법회 식순
- 부처님의 탄생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부처님의 탄생이야기/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 등을 밝히며  
등을 밝히게 된 유래/등의 종류/등을 밝히는 행사들
- 관불의식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 등공양의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들

**부처님의 생애**      신국판 72페이지, 법보시 특가: 1,500원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신국판 80페이지, 법보시 특가: 1,500원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팩스(02)738-8682

## 봉축위원회 공식 지정 봉축 현수막

2542 Buddha's Birthday

# 부처님오신날

대인불교조계종 봉은사

대인불교 조계종 조계사

이웃과 함께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아가.김충원 이번 봉축행사에 각 사찰에서는 봉축위원회 지정 현수막을 사용하여서 불교계의 일체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공식 지정업체로 선정된 감로기획에서는 국민적 축제인 불기254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현수막을 질기고 품질이 우수한 최고급 천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덕 큰스님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가격표 ◆

품명	규격	가격
현수막	90cm×6m	40,000원
	90cm×8m	50,000원
	90cm×10m	60,000원
불자의집 교패	2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1,000원
차량용 스티커		300원
어깨띠	1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500원
리본	일반	220원
	귀빈용	330원
	5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1,000원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 · 7 FAX: (02)738-8682